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산별대표자 설명회 개최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는 5월 24일(금)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산별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지역 산업별 위원장을 대상으로 직업병 안심센터에 대한 사업설명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 노동자가 핵심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을 비롯해 금속, 화학 등 다양한 산업의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직업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천직업병 안심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센터의 주요 사업과 서비스, 그리고 지역 노동자들이 직업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어떻게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는 이번 산별대표자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 노동자들이 직업병 안심센터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별 위원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는 보다 섬세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이 직업병 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센터(직업환경의학과 정경숙 교수)는 지난 5월 21일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방안을 주제로 2024년도 상반기 강원직업병 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원주지청 관할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병 안심센터,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 근로자건강센터가 합심하여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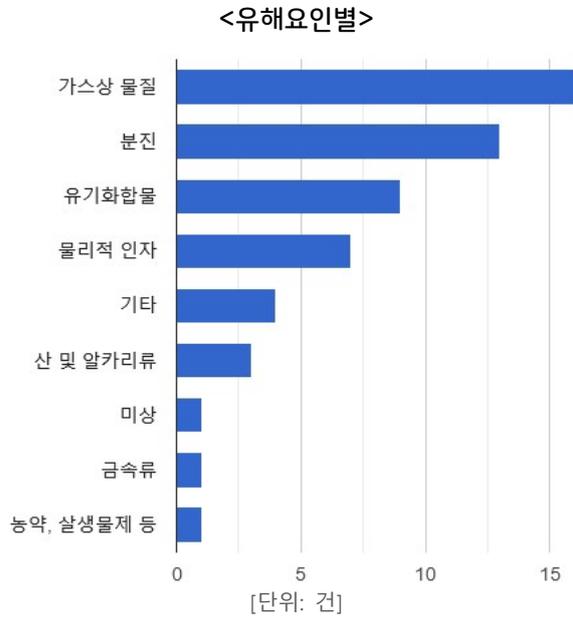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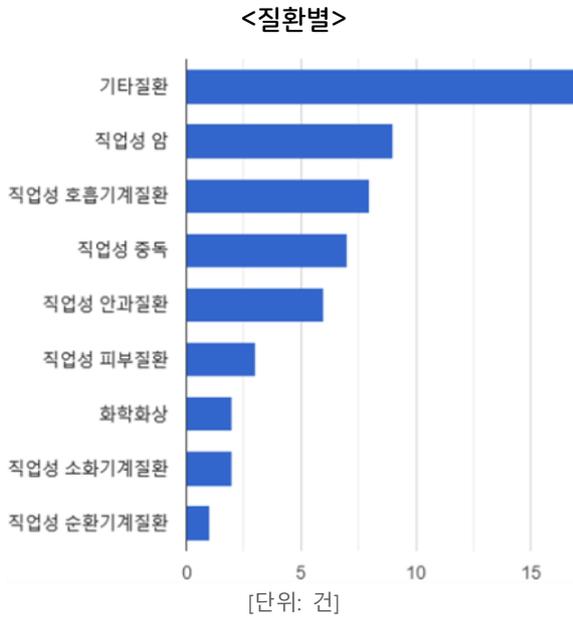
특히,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노후화 문제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았으며 유관기관 들의 협력이 중요하단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는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성질병 모니터링과 작업환경관리에 힘쓰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회의 안건들을 토대로 집중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정경숙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원주지청 관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직업병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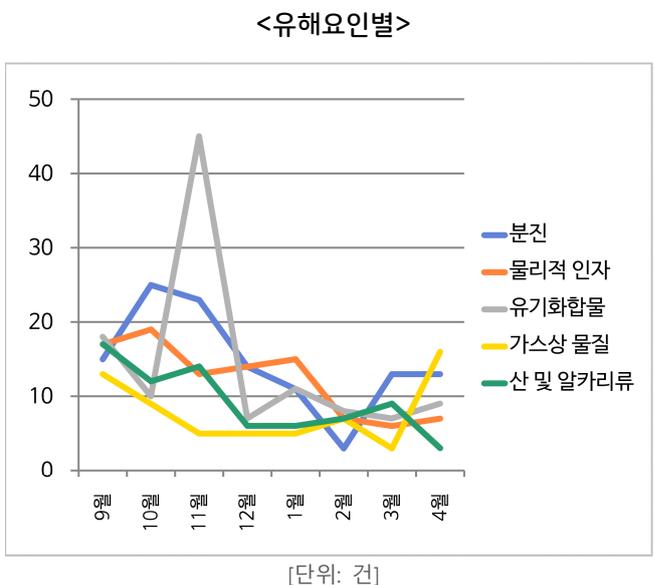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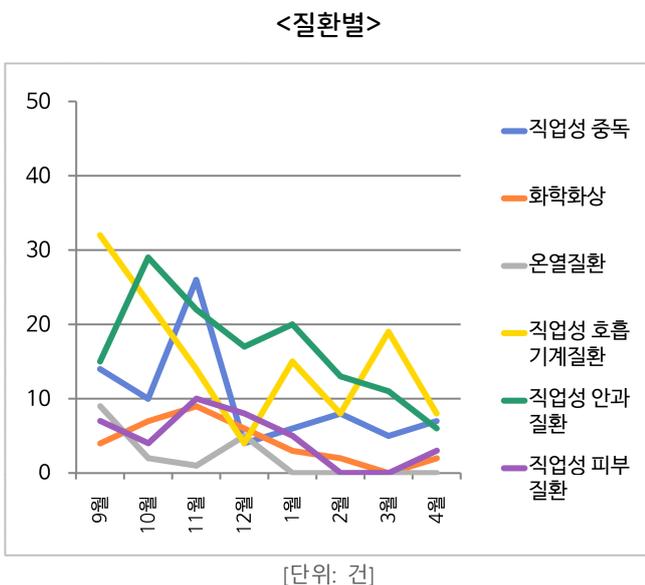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직업병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4년 04월 (2024.04.01.~2024.04.30.)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부직업병 안심센터에 총 55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기타질환 17건, 직업성 암 9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8건, 직업성 중독 7건, 직업성 안과질환 6건, 직업성 피부질환 3건, 화학화상 2건, 직업성 소화기계질환 2건, 직업성 순환기계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가스상 물질 16건, 분진 13건, 유기화합물 9건, 물리적 인자 7건, 기타 4건, 산 및 알카리류 3건, 미상 1건, 금속류 1건, 농약, 살생물제 등 1건 등이었습니다.

2023년~2024년 월별 직업병 사례보고 추이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직업병 사례

“LPG가스 및 페인트 작업자에서 발생한 과민성 폐장염”

30대 남성으로 LPG 가스 및 페인트 작업자로 근무하는 분이다.

페인트 작업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호흡곤란과 열감을 주소로 호흡기내과 진료를 진행하였다. Chest CT 결과, 간유리 음영이 확인되었고, 임상적으로 과민성 폐장염으로 진단되었다.



과민성 폐장염은 주로 유기 분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호산구 침윤이 폐엽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다른 간질성 폐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며,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질병발생의 기전이나 임상적 특징이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지만, 이 질환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반복적인 증상이 발생한 이후나 비가역적인 손상이 남은 후 진단되는 사례가 많다.

2020년 국제호흡기 학술위원회에서는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바탕으로 비섬유상 과민성 폐장염과 섬유상 과민성 폐장염으로 구분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직학적, 영상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임상경과에 대해 파악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흉부 방사선검사, HRCT에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를 조합하여 진단에 활용하도록 한다.

과민성 폐장염의 병태생리는 복합적인 면역반응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정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국내에는 사례 보고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연간 발생률이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업 활동을 통해 무기물질이 흡인되어 발병되기도 한다.

급성형은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4~8시간 내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8~12시간 지속된 후 자연히 소실된다. 재차 노출되면 동일한 증상 및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 반복 노출이 없는 경우 빠르게 회복되지만 노출이 없는 동안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만성형은 폐에 돌이킬 수 없는 조직 손상이 일어난다. 점진적인 호흡 곤란, 기침, 근육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발열은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사례에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지진 못 했으며, 작업 환경 중 폐쇄된 공간에서 유기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페인트에 시아네이트 등 과민성 폐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편). 직업환경의학. 계축문화사. 2022. p.286-289

과민성 폐장염 [hypersensitive pneumoniti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제재소 작업자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

70대 남성으로 약 50년 간 제재소에서 근무하신 분이다. 약 50년간 나무를 제재하였다고 하며, 겨울에는 문을 닫고 불을 피우는 ‘루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운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10년 전 폐렴으로 입원 치료한 병력 확인되었다. 폐렴 이전에도 가래가 있었다고 한다. 199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기간 목 분진에 고농도로 장시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폐는 공기교환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폐포와, 이들을 연결하는 사이질(폐간질)로 구성되어 있다. 간질성 폐질환은 폐간질 부위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의 침윤, 섬유화가 진행되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환을 일컫는다. 간질성 폐질환은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원인이 있는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육아종성 질환,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한다.

간질성 폐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한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일부 환자에서는 기침이 주된 증상일 수도 있다. 대체로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지만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 아직까지 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제는 없으나 섬유화의 진행을 늦추는 항섬유약제가 2014년에 개발되어 널리 사용중이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 산소공급이 필요하며, 모든 환자에서 호흡재활이 추천된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진행될 경우에는 폐이식만이 그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유병률, 빈도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간질성 폐렴의 직업성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에 의한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질성 폐질환은 최근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 발견시 직업성 위험인자 노출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편). 직업환경의학. 계축문화사. 2022. p.289-292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치료: 특발성 폐섬유증을 중심으로 알아보기, 강혜린 외 1인, 대한의사협회지 63권, 3호(2020)
간질성 폐 질환 [interstitial lung disease]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옥외작업자에서 발생한 군날개”

50대 남성으로 15년간 옥외작업에 종사하신 분이다.

몇 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군날개로 안과 치료 중이며 자외선이 유해인자로 확인된다.

군날개는 익상편이라고도 하며, 결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증식하여 대개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는 안질환이다.



군날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주요한 원인인자는 자외선이다. 눈의 코 쪽 흰자위는 콧등에서 반사된 빛이 비추어지며 눈을 감을 때 가장 늦게 감기는 부위이므로 다른 부위에 비해 항상 많은 자극을 받으므로 군날개가 많이 발생한다.

군날개는 서서히 자라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섬유혈관 조직의 자극에 의한 충혈 같은 외관적 증상 외 특별한 증상은 없다. 크기가 증가할수록 안구건조증이 동반될 수 있고, 각막이 눌리면서 각막 중심부로 자람에 따라 난시가 증가하며 시축(동공 부위) 침범시에는 시력저하, 바깥쪽으로의 눈 움직임의 제한(사시)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물감이 있을 경우 인공눈물과 같은 윤활제 점안이 도움이 된다. 자라나는 속도가 빠른 경우 염증 조절제를 사용해 진행을 늦추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수술적 절제 후에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 이 질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재발한 군날개나 수술 후 흉터조직이 형성되었을 경우 눈 운동의 제한은 더 잘 발생하므로, 병변이 크거나 재수술의 경우 스테로이드나 마이토마이신 C 안약을 적용하기도 한다.

군날개의 원인인자로 알려진 햇빛(자외선)에 노출된 옥외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되도록 자외선을 차단하고, 황사철과 같이 먼지가 많고 바람이 부는 날은 보안경을 착용하여 근무하는 것이 눈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자가관찰 및 생활양식을 준수하여 군날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내용 출처〉

대한직업환경의학회(편). 직업환경의학. 계축문화사. 2022. p.343

익상편 [pterygium]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소화기질환

- ◆ 생명과학연구소 종사자의 DMF 노출에 의한 독성 간질환

직업성 중독

- ◆ 육류 가공업 종사자의 LPG가스 노출

직업성 피부질환

- ◆ 공장 근로자의 성분미상의 물질 노출에 의한 신체부위의 부식

기타질환

- ◆ 배터리 제조업 종사자의 불산 노출 후 독성 사례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010-2438-6798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

